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2. 무착의 전삼삼 후삼삼

천봉오리는 굽이굽이 짙푸른데
千峰盤屈色如藍
어느 누가 문수와 말을 했다가
誰謂文殊是對談
우습다. 청량산에 수도승이
堪笑清涼多少衆
저기 셋 여기 셋이라니
前三三與後三三

가고 있나? "말법의 비구는 계율을 받드는 자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 그 계율을 받드는 자가 얼마나 되나?" "아마 300

'전삼삼 후삼삼'은 흑백의 판가름을 벗어난 답자성본원으로 계합시키려는 문수의 의도 내포

위의 선사는 <백암록> 35칙에 '문수전삼삼(文殊前三三)' 공안에 대해 원오 극근의 계송이다. 이 선화의 주인공인 무착 문회(無著文喜, 820-899)는 양산의 제자며 성은 주씨라고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무착이 오대산에 간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하룻밤 그 절에서 신세를 지게 된다. 그때의 문답이 <백암록> 35칙 본칙(本則)이다. 무착은 이 선화를 확인 지도 하는 수시(垂示)로 썼다고 한다. 문수보살이 무착에게 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나?" "예 남쪽에 있었습니니다." "요즘, 남쪽의 불법은 어떻게 되어

에서 500명 정도 될런지요." 이번에는 무착이 문수에게 물었다. "이곳에서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깨달은 자도 평범한 자도, 옹도 뺄도 다 함께 뒤범벅이지.(凡聖同居 龍蛇混雜)" "수행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문수가 대답했다. "저기 셋, 여기 셋 정도지.(前三三後三三)" (<백암록> 35칙 '文殊前三三') 우리는 이 선화에서 "수행자가 얼마나 됩니까?"하는 무착의 질문에 "전삼삼 후삼삼"이란 문수보살의 대답을 듣게 된다.

"여기도 셋, 저기도 셋"은 과연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수란 말인가? 우리는 언제나 '얼마'란 말, 곧 다소(多少)에 대해 길을 여겨 있다. 10명이나? 100명이나? 우리는 항상 '흑백'의 판가름의 세계에 살아왔고, 이항대립적인 가름에 답을 선택하게 하였고 또 선택해왔다. 그러나 이런 사유에 던져지는 벽력같은 말 "저기 셋, 여기 셋 정도" 무언가 정답이 없는, 정답을 내기 위한 정신작용에 문제가 생기므로 오는 명칭함. 여기에 우리는 사랑(思量)하는 잣대를 잃는다. '전삼삼 후삼삼'은 일반

적으로 '범인과 성인이 동거하고, 옹과 뱀이 뒤엉켜서(凡聖同居 龍蛇混雜)' 여기 한 무리, 저기 한 무리 무리지어 있다 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는 문수가 일깨우고자 하는 것, 곧 우리를 자성본원으로 계합시키려는 융통한 의도가 숨어 있으나, 조심해야 한다. <백암록> 본칙은 여기서 끝나지만, 평창에 의하면 문수보살이 무착에게 차를 대접했다. 이때 그 다기를 가리키면서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그래, 남방에도 이런 게 있는가?" "아니,

없습니다." "그럼 뭇으로 차를 마시나?" 이 질문에 무착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얼마 후 무착은 문수에게 하직을 고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문수가 동자를 시켜 산문까지 전송해 주었다. 도중 무착이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문수께서 전삼삼 후삼삼이라 하셨는데, 그건 대체 몇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자 동자는 대답대신 갑자기 무착을 불렀다. "스님!" "네!" "그건 뭇이나 됩니까?" 이쯤 되면 앞의 계송의 뜻이 다가 올 것이다. 3행과 4행에서 '청량산 수도승이(저기 셋, 여기 셋이라니)'라 대답한 의도, 역시 짐작코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 않은가. 1행과 2행은 '뽕지가 풍파가 일어난 격'이다. 1행은 오대산의 전경을 그렸고 2행의 "어느 누가 문수와 대답을 했다고 하느냐(誰謂文殊是對談)"는 오대산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문수인데, 무얼 가지고 문수와 대답을 했다 하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동자는 무착을 부른다. '네' 하는 대답은 자성본원에서 자발공하는 음성적 파동태이다. 이것을 몇 명이 따져 '흑백'을 구분해서 대답할 수 없음을 분명하다. 이러한데, 그 따위 터무니없는 수작을 하는 게 누구냐? 오대산 도처에 문수가 있지 않은가. 정말 문수를 만났다면 '전삼삼 후삼삼' 같은 수작을 할 터이다. 어느가? 알았다 해도 우리는 나무마래에서 잘 생각해 볼일이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연잎과 연뿌리 생무침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불교(佛敎)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상징하고 나아가 연꽃은 빛과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상징하기도 해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도와 이집트와 원산지인 백련(白蓮)은 7월과 9월 사이에 하얀 꽃을 피우는데 일시에 피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해서 피고 진다.

연근은 각혈·코피 등 지혈효과 우수 연잎으로 담근 연엽주·연향차 인기

연꽃은 붉은 홍련(紅蓮)이 대부분이고 흰 꽃을 피우는 백련(白蓮)은 매우 귀하다.

연꽃은 꽃잎이 떨어지면 벌집 모양의 열매가 10월중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는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 있다. 연꽃이 지고 나면 생기는 열매를 연실(蓮實)이라 부르며, 집안을 치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한다. 또한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뿌리는 연근(蓮根)이라 하여 식용으로 즐겨 먹으며, 연잎으로 담근 연엽주(蓮葉酒)와 연향차(蓮香茶)는 고유의 술과 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근의 식물성 섬유는 장벽을 적당히 자극하여 장내의 활동을 활발히 해주며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또한 혈분과 탄닌성분은 소염작용이 뛰어나 점막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므로 코피가 잘 나는 사람이 먹으면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열이 있거나 만성 설사증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연은 버릴 것이 없기로운 것은 볶아 먹거나 찌거나 찌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해서 피고 진다.

연은 버릴 것이 없기로운 것은 볶아 먹거나 찌거나 찌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해서 피고 진다.

연은 버릴 것이 없기로운 것은 볶아 먹거나 찌거나 찌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해서 피고 진다.

연은 버릴 것이 없기로운 것은 볶아 먹거나 찌거나 찌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해서 피고 진다.

연은 버릴 것이 없기로운 것은 볶아 먹거나 찌거나 찌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해서 피고 진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취하면 다 광대가 되는 법이지

불교 인물·사건 등 '인유'로 시적 형상화

이승하는 1960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김천에서 성장하였다.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시집 <사랑의 탐구>, <폭력과 광기의 나날>, <박수를 찾아서> 등 일곱 권의 시집을 내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현대시와 풍자미학> 등 7권의 연구서와 시론집을 내기도 했다. 그의 최근 시집 <취하면 다 광대가 되는 법이지>에 담긴 58편의 시들은 창작방법상 인유의 방법을 일관되게 활용하고 있다. 이승하는 '시인의 머리맡'에서 '이 시집의 시들을 써 나가는 동안 모진 방법으로 시를 가르쳐 주신 미당 서정주 선생님을 계속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집 뒤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를 제목으로 쓴 '시인의 편지'를 게재하고 있어, 시인이 미당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등단하게 된 사연을 적고 있다. 이 시집에서 이승하가 인물과 사건을 인유하는 능청스런 산문적 어법을 미당의 방법에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집은 광대, 구도자, 노래, 예인을 제재로 한 시를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이 가운데 원효, 운암과 지장, 엄장과 광덕, 한산과 습득, 초의선사가 주사에게, 혜초, 성철, 청화, 수경, 지율, 응천사, 풍요, 도술가, 제망매가, 안민가, 우적가 등 불교 인물이나 사건을 인유한 시가 20여 편에 가깝다.

빠르다.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보다 정통과 무수의 꿈 빠르기보다 빠르다. 기다릴 수 없는 불과 초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 전해지는 전송 속도! 운암이 마조의 제자 지상을 찾아갔다.

자신은 운암을 보더니 갑자기 확시위를 당기는 시를 썼다. 이에 절제라 운암은 칼을 빼 휘장을 쳐내는 시를 썼다. 그러자 지상이 소리쳤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운암도 물러서지 않았다. "늦으면 길은 멀어지오." 이 소리에 지상이 절절 웃었다.

- '구도자를 찾아서' - 운암과 지장' 부분

이 시는 속도만 있지 깊이가 없는 현대의 일상을 운암과 지장이라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까지 오랫동안의 번민과 망설임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기다림이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즉시 전달한다. 이러한 의사전달의 속도에 대한 문제를 지상과 운암의 선적 사건을 통해서 '늦으면 길다'는 잠언적 경구를 독



자에게 던져준다. 다시 말해 현대의 속도 중심 문명은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갈수록 가속도를 추구하려는 경박한 현대의 사람들이 맑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과거 운암과 지장 선사가 서로 느낌과 깊이로 공감하고 웃었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승하는 원효를 암자에서 내려와 아무 거리낌 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담으로 살리고 했던 파계승으로 형상화한다.

승복을 벗고 목탁도 버리고 저 자라고 싶은 대로 놔둬 머리라락과 수염 어느새 백발 쪽박 찬 저 지저분보다 내가 나는 것이 도래해 무엇이었소 공양을 받으며 만인을 내려다보며 내 두드린 목탁은 승 것이었소

- '광대를 찾아서 5-원효(617-686)' 부분



연잎과 연뿌리 생무침

재료: 연잎, 연뿌리, 식초, 고추장, 설탕, 깨소금, 잣, 고춧가루

- ① 연잎은 깨끗이 씻어 한입에 들어갈 정도로 손으로 찢어 둔다.
- ② 연뿌리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아주 얇게 썰어 소금물에 담가둔다. 소금물에 담가 두면 색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③ 식초, 소금, 설탕, 깨소금을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을 만들어 놓는다.
- ④ 식초,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 매콤한 양념을 만들어둔다.
- ⑤ 손질한 연뿌리를 두 가지 다른 양념으로 각각 무친 후 맛을 올려 보기 좋게 담아낸다.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차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본체(육송)	1200×600×300(소)	300,000	160,000
	1300×770×300(중)	400,000	200,000
	1500×770×300(대)	500,000	260,000
	1800×770×300(특대)	600,000	300,000
합계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육송좌탁은 원천 수경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직업으로 제작.
-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송향목) 사용
- ▶ 사용: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책상 등
- ▶ 사용법: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 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불수축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 천소헌)

[생활명상서] 명상 그 특별한 눈의 지혜

- 다양한 명상법과 수련방법 안내 -

고목 지음

신국판 276쪽 W10,000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하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의 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未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행서점 · 불교서점
- 출판: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범용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제선사님의 생생한 육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당일엔 광릉내 707번 중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일 시: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60,000원(농협 100083-56-142307 예금주: 위일석)

입금하시고 011-9024-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011-9024-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